

목포시, 시민의 힘 모아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추진단 발대식 개최...시민 100여명 참석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국비 최대 100억 지원

목포시는 지난 22일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힘을 모을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정된 도시로,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금년 11월 말 예비문화도시 지정 후 1년간 예비사업을 거쳐 2021년 말 법정 문화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받아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목포시 문화도시 추진단은 ▲도시재생 ▲관광 ▲문화예술 ▲청년 ▲지역공동체 5개 분과 시민들과 문화도시추진협의회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역의 문화적 삶 확산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적으로는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시민 거버넌스 구성,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정책 자문·컨설팅 등 그 동안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시민 대표 결의로 낭독을 통해 문화도시 지정을 기원하며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만들기에 앞



장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문화향구 통합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성 ▲개발성 ▲소통 ▲융합 ▲창조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목포 문화도시 슬로건과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 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 의견들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추진단 주관으로 마련된 문화향구 개항식에서는 시민들의

공연을 보면서 소통하며 문화시민으로 도약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나갈 것이다.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보라색으로 뒤덮인 신안군 반월·박지도.

신안군 '섬 보라색 축제' 무기한 연기

신안군은 7월 10일부터 8월 2일(24일간)까지 안좌면 반월도·박지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섬 보라색 축제(제1회)'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조짐에 따라 우리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안군은 인구를 다 합쳐 봐야 120명 남짓한 반월도와 박지도에 68억원을 들여 보라색을 주제로 퍼플교, Moon Bridge, 마을 지붕과 도로, 라벤다 정원 등 마을 주민들과 함께 퍼플섬을 조성해 왔다.

안좌면 반월·박지도 주민들은 "두 섬을 잇는 퍼플교와 Moon Bridge가 놓이면서 '섬속의 섬'인 이곳이 생기를 되찾고 섬 보라색 축제를 위해 주민 모두가 나서서 준비를 해왔는데 무기한 연기가 되어 아쉬우며,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월에 접어들어 주말마다 5,000여명이 퍼플섬을 찾고 있으나, 코로나19의 비수도권 지역사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더 알찬 축제를 준비할 예정이므로 신안군 안좌면의 퍼플섬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안좌면 두리와 반월도를 잇는 부잔교식 교량으로 길이는 374m이며, 콘크리트잔교 및 알루미늄 해상교량으로 구성됨



영광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하반기 역점사업 등 263건의 현안 공유

영광군은 지난 22일 김준성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읍·면장, 각 서무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계획한 주요시책 263건에 대해 상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판매액

120억 원 돌파 ▲군남보건의료소 신축 ▲천 원 여객선 운행 개시 ▲가축시장 현대화 ▲영광문화원 준공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착공 ▲영광 제2정수장 공모 선정 등을 상반기 주요 군정성과로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 ▲한빛원전 폐로대비 전략 수립 ▲모량농공단지 착공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청년

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착공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소평물 구축 ▲영광군 상징물 재개발 등 각종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성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은 군민과의 약속이다. 코로나19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지역 전통시장 코로나 위기극복 힘 모아

목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활력 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7개 전통시장과 자매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시청 공직자들은 국별로 담당시장을 정해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수렴할 계획이다.

자유시장과 기화관리국, 신중양시장과 자치행정복지국, 종합수산시장과 관광문화체육국, 동부시장과 경제산업국, 청호시장과 안전도시건설국, 항동시장과 환경수도사업단, 중앙식료시장과 도시발전사업단간 개별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홍식 시장은 목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서기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인 여러분들에게도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민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영암읍,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

소공원·쌈지공원 51개소 3.2ha 걸쳐 추진

영암군 영암읍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관내 소공원 및 쌈지공원, 회전교차로 주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영암읍 내에 있는 소공원 및 쌈지공원 51개소 3.2ha에 걸쳐 추진된다.

연도변 풀베기 작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인회(회장 이행도) 회원들은 마을 경관 조성과 더불어 깨끗한 영암읍 이미지를 만들고자 구슬땀을 흘렸다.

영암읍 관계자는 "영암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 '버스킹' 공연장서 도로명주소 홍보



무안군은 지난 19일 남악 중앙공원 여름밤 감성 버스킹 공연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편리한 길찾기, 기초번호를 활용한 건물이 없는 도로에서 응급 상황 시 위치 알리기,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에 동·층·호를 부여 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SNS에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합시다' 홍보문구를 올리면 파스 등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도로명주소 쓰기 등 사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여 군민들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무안군 여름밤 감성 버스킹'에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이계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